



강진 고바우공원 전망대의 '붉은노을'

28일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고바우공원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이 붉은 노을을 감상하고 있다. 고려청자요지가 있는 청자촌 주변에 자리한 고바우공원에는 강진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카페가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신안 국내 최초 '에코라벨' 개발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효율적 관리·홍보

군, 상표등록 특허 출원



신안군이 국내 최초로 '에코라벨(CI·사진)'을 개발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효율적인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최근 에코라벨을 개발,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했다.

군은 농수특산물 포장재, 홍보물, 기념품 등에 부착할 다양한 에코라벨 디자인을 조만간 개발해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코라벨이 부착되면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하는 천일염, 시금치, 병어, 민어 등 친환경 특산물인 지도 향상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고군은 설명했다.

신안군에 속한 14개 다도해 섬 등을 형상화해 만든 에코라벨은 '빛나

는 섬에서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자연 보전·복원·휴식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박우량 군수는 "독일 린 지역 특산물에 에코라벨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결과 다른 지역 특산물보다 5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신안 증도, 비금, 도초, 흑산, 홍도 등 5개 섬과 해역 573.12km가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이 공존하는 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설 명절을 맞아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하거나 정상 운영한다.

■ 설 연휴 전남 주요 관광지 무료개방·정상운영

완도 수목원 국내 최대 난대림 보고 담양 죽녹원서 차 한잔에 힐링하세요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은 설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2월1일까지 3일간 지역 주민은 물론 일반 탐방객들에게 무료 개방한다.

완도수목원은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완도 호랑가시나무 등 조경 및 식용·약용으로써 가치가 높은 상록활엽수가 자생하는 식물자원의 보고로 지난해 9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담양군은 설인 31일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길, 한국 대나무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 소재원, 가마골생태공원 등 6곳을 무료 개방하

기로 했다. 죽녹원은 미국 CNN방송이 '한국에서 가봐야 할 곳 50곳'으로 선정한 관광명소로 연간 120만명이 찾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길은 드라마와 영화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 명승지로 지정된 소재원과 한국대나무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도 남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다.

고흥군도 우주천문과학관과 만남의 광장을 정상운영한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설 연휴 동안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또 고흥 만남의 광장은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정상 운영하고 귀성객과 관광객들 위해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star.goheung.go.kr)은

담양읍 용정리 장기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밤에는 성운·성단 등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낮시간에는 태양 흑점 등을 관측할 수 있다.

여수 돌산읍 무술목 유원지에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도 31일 오후 1시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 정상 개관한다. 주요 볼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관상어 전용수조에 청색쥐돔, 해포리고기, 여우고기, 범돔 등 다양각색의 화려한 납해안 토산 해수 관상어를 전시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국제규모 카트경주장인 영암 F1경주장(KIC) 내 F1카트장에도 귀성객과 도민들이 함께 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에도 운영한다.

F1 카트장에서는 카트를 처음 접한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사전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국제 수준의 시설과 최고급 카트를 즐길 수 있다. 사용료는 10분당 주말은 1만 2000원, 주중에는 1만원으로 다른 카트장에 비해 30~40% 저렴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igg@



함평군 어르신 이동진료차량 민주당 정책우수사례로 선정

함평군이 민선 5기 시책으로 추진한 이동진료차량이 민주당의 정책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민주당 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최근 민선5기 민주당 지방정부의 민생복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서민복지 정책을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함평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와 관련 안병호 함평군수(오른쪽)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정책대회 겸 지자체 워크숍에서 이동진료차량 우수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함평은 지난 2011년 실버안방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우수지방 자치단체 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민선 5기 동

안 2번이나 민주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

함평군은 지난 2011년부터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생물복지 10명, 법률상담 변호사 1명,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5명, 자원봉사자 6명 등 20여명이 팀을 이뤄 주 4회 마을을 순회하고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따스한 서민복지 확대를 위해 실시한 이동진료차량이 민주당으로부터 의미있는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피는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여수산단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오픈

환경·화학구조·가스안전·지자체 등 5개팀 33명 구성

여수산단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달할 '여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28일 여수 산단로 전남아트센터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여수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화학구조·가스안전·지자체 팀 등 5개 팀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남·광주·제주

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및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조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 합동방재센터를 여수, 구미, 시흥, 여수, 익산, 서산 등 6개 권역에 설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성곤 국회의원, 여수시장, 전남소방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방재센터 개소식 및 현관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창웅 전남도소방본부장은 "앞으로 합동방재센터가 산업단지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영암 월출산 기찬뿔길 오토캠핑장 조성

문광부 신규 사업 선정...국비 10억 등 투입 하반기 착공

영암군의 월출산 기찬뿔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4년 국민 여가 캠프장 신규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민 여가 캠프장 조성사업'이란 최근 유행하는 가족중심의 캠핑 문화의 확산에 따라 관련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10

월 '국민 여가 캠프장 조성사업'을 신청, 전국 총 31개소의 사업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국비 10억원과 군비를 투입해 올 상반기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 착공해 2015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캠핑장 면적은 1만5673㎡로, 캐러밴 6대를 비롯한 야영장, 체육활동장,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선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그림은 고향으로

지난해도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애정과 관심을 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갑오년에도 정성을 다하는 최상의 서비스로 한분 한분을 소중히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